불자 세상보기

불교계도 ‘우리와 함께 울어요’

진오 스님
사단법인 꿈을이루는 사람들 대표

초기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에는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이 가르침은 출가 스님과 재가 불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불살생 계목과 연결돼 있다.

살생은 사람이나 짐승 따위의 생물을 죽이는 행위인 반면 불살생은 생명의 무한가치를 강조한 점에서 불교의 존재의미가 폭넓게 담겨 있다. 특히 불살생은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가 아닌 자비종자를 끊는 원인이 되고, 일체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기준이므로 불자는 평화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등장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여성 1호 박사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은 14일째(3월 8일 현재) 단식 농성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중국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중이다.

이런 가운데 4일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북한인권단체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 우리와 함께 울어요)가 주최한 탈북자 북송반대 콘서트에 50여 명의 연예인이 참가해 탈북자 북송 반대를 호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같은 각종 단체들도 중국대사관에 탈북난민 북송중단 촉구서한과 항의 집회를 열고 있고, 정부에서도 미국과 공조하여 중국당국의 탈북난민 지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자로 보는 강제 북송의 원칙에 인권적인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친북한 정책으로 강제송환이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닌 듯 하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오뚜기쉼터’에서도 이번 중국당국의 강제 북송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나누었다. 충격적인 것은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100일간의 애도기간 중에 중국 공안(경찰)에 잡힌 북한주민 30여 명이 강제 추방된 후 공개처형 됐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11~19세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또래 이탈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연변지역 조선족 동포 가운데 포상금을 타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밀고하거나 심지어 북한 당국에서 탈북을 가장한 주민으로 위장하여 생계를 위해 넘어간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강제 북송이 되면 예전에는 1년에서 10년간 수용소에서 형벌을 받는 정치적 탄압을 넘어 더 이상 북한 이탈주민이 없도록 공개 처형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집행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간 2000여 명의 북한주민은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다.

불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안이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굳이 정치현장에 들어가지 않더라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인권의 관점에서 종단의 입장표명이 빠를수록 죽임의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와 북한 당국의 실정으로 우리 사회가 중국의 북송정책을 규탄하는 방법 이외에 불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원광 법사의 살생유택(殺生有擇)처럼 생명에 대한 죽임에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삼국시대의 혁신적인 세속오계를 참고하면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사문은 생물을 죽이지 않고, 생물을 죽이게 하지 않으며, 생물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중아함〉 우담바라경의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社說

불교가 개혁 꿈꾸는 이유

부처님은 무상(無常)의 법문을 설했다. 상주(常住)하는 것이 있다면 “제행이 무상하다”는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태어난 즉시부터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무명에 가려진 이에게 변화는 죽음을 상기시킨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항상한 줄로만 알던 카스트 제도를 타파했다. 신분제 뿐 아니라 생사를 유전하는 윤회고마저도 박차고 나와 열반에 이르렀다. 주체적 ·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많은 이들이 불교의 변혁을 외쳤다. 조선 말기~일제강점기 용성 · 만해 선사 등이 대표적이다. 스님들은 현실을 철저히 깨부수고 생각으로 정법의 새 집을 지었다. 그 설계도가 조선불교유신론 등이다. 이들의 뒤를 광덕 휴암 등이 뒤따랐지만 불교계의 현실은 여전하다. 스님들이 간곡한 마음으로 그린 설계도는 완전한 집을 짓지 못한 채 빛바랜 도면으로 남아 있다. 왜일까?

계간 〈불교평론〉이 통권 제50호를 기념해 ‘한국불교 개혁을 꿈꾸다’를 주제로 전권특집호를 펴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 김재영 청보리회 법사, 박경준 동국대 교수 등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허부터 휴암까지를 재조명했다.

〈불교평론〉 홍사성 주간은 권두언을 통해 “불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모든 생각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거기에 불교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와 평론에 기고한 이들의 목소리에 불교계의 살 길이 있다. 변해야 불교가 산다.

국가조찬기도회 중단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또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무릎기도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는 가슴에 성경을 품고 등장했다. 특히, 특혜시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행사에서 설교했다.

제스처는 소프트했지만 입은 여전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의 고민이 더 있다. 그것은 정치 교육 문화 종교에까지 스민 갈등이다”라는 발언이 그 예이다.

오 목사도 지원사격을 했다. 그는 설교를 통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개신교인들이 단결해 대통령을 지켜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불자들은 작금의 종교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고, 누구 때문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더 세게 비판하지 않음은 다수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기 때문이다. 공인은 공인이 지켜야 할 품위가 있다. 권리보다 앞선 의무가 있다.

최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 처사이다.

이 대통령과 개신교계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역사 · 헌법 · 국민을 우롱한 만행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조고각하(照顧脚下)하면 대오각성(大悟覺醒) 한다. 저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안되면 불교계가 나서서 할(喝)하거나 방(棒)해주는 것도 자비이다.

사부대중 칼럼

배려와 존경이 아름다운 사회 만든다

오심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3월은 참 바쁜 계절이다. 해가 하루가 다르게 길어지고는 있지만 하루해가 짧은 것은 여전하다. 그래도 겨울보다는 길다. 동지에 즈음한 해를 두고 옛 어른들은 가을걷이는 하루한번 폈다 구부리면 참(일 하다 먹는 간식)시간이 돌아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깊은 산골 사찰에는 겨우살이를 보내고 봄을 맞아 기지개가 한창이다. 삼동결제에 먹을 음식이며 난방준비, 방 마다 방한 비닐준비 등이 누구나 먼저 할 것 없이 바삐 움직인 것이 어제일만 같은데, 시간은 화살과 같다.

요즘 여러 종단에서 스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한 포교사, 법사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본다. 이 분들이 이구동성이라해도 무방할 정도로 말하는 것이 있다.

“이 시대에 존경하고 어른으로 섬길만한 스승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스승이 없는 수행자나 신자들은 행동이 여법하지 못하고 믿음도 중장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가르침을 내리셨다.

“제자들이여. 스승은 제자에 대하여 아들처럼 생각하고 제자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라. 사제가 서로 공경하여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면서 살아간다면 다 같이 이 교단에 진취(進趣)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스승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 적시에 일어나 신발을 벗고 상의를 갖추고 스승께 세숫물을 올리고 스승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스승이 자리를 뜰 때에는 자리를 걷고 청소하고 스승의 입안에 혀처럼 부족함이 없이 도와드리고 존경해야한다. 또 스승은 제자에게 경을 읽게 하고 질문하게 하여 가르치고 사랑하며 제자를 도와야 한다. 제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친절하게 대하며 제자가 슬퍼할 때 정성으로 위로하고 모름지기 제자를 위해 염려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 제자 수가 늘어남에 위아래도 없어지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는 세태가 되어가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스님은 삼보 중에 하나다. 그런데 삼보에 귀의한 불자들이 길거리에서 스님을 마주치면 쑥스러워서 그런지, 모르는 스님이라서 그런지 외면하기 일쑤다.

아는 스님이라도 멀리서 보고 모른 체하면서 움츠려 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필자가 스님이라서가 아니라, 혹여 굳이 신도들에게 인사를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스님에 대한 합장은 불자로서 삼보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첫걸음이다.

포교사도 마찬가지다. 괴색 옷을 입고 길거리를 많이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승복은 아니지만 포교사 단복은 종단에서 부처님법을 홍포하기 위해서 지정해준 단복이다. 이 단복은 신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저 옷을 입은 이를 일반불자보다는 조금 높이 쳐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포교사 단복을 입은 채로 담배를 피운다거나 상스러운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떠들고 웃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대다수 포교사나 법사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스님들도 포교사들도 승복이나 단복을 입었을 때는 스승으로서 위의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다. 불자들은 승복을 입은 스님이나 단복을 입은 포교사들과 마주 했을 때 깍듯한 예의로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처님께서는 “스승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도리이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현자”라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스승을 친견하려거든 자신의 모습을 한 없이 내려놓고 하심으로 스승을 찾으면 바로 눈앞에 스승이 보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 아닌 것이 없다고 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불제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내가 좀 알고 있는 상식이 법문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 있으면 의기양양해 하지 말고 모름지기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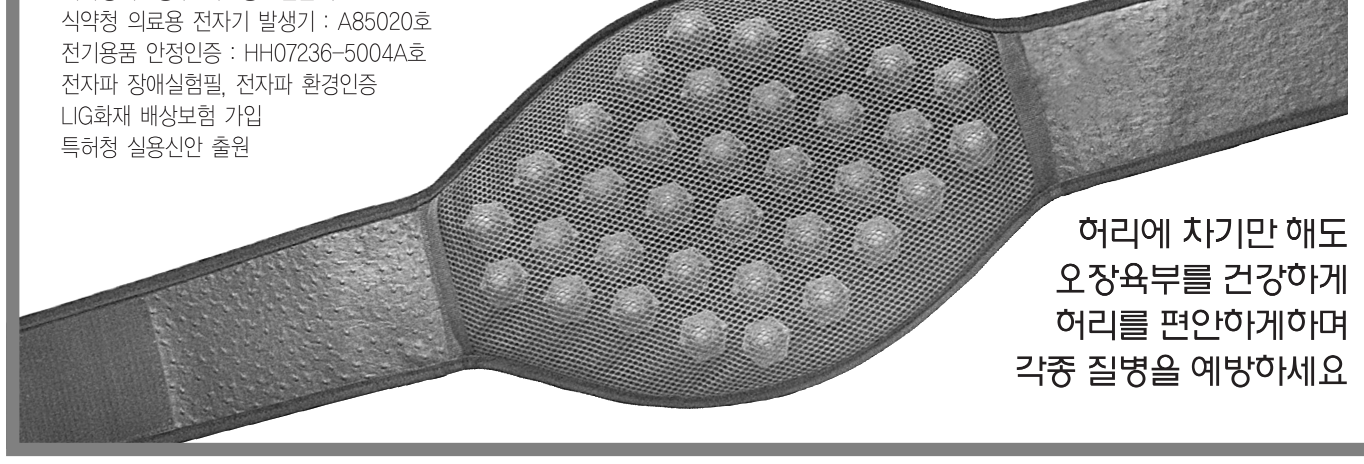
요즘은 봄산행이 한창 좋은 계절이다. 산에는 반드시 사찰이 있을 것이다 물론 없는 곳도 있지만 급한 일이 아니면 사찰에 들러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신심을 증장 시키는 것도 불제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여느 사찰에 가보면 절에 좀 오래 다녔다고 사찰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예의 없이 행하는 이도 더러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삼보정재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님을 조금 안다고 방에서 큰소리로 떠든다던지 예의 없는 버릇을 하는 이도 더러 볼수 있다. 소위 말하는 아주 꼴불견스런 일이다.

늘 여여한 마음으로 삼보에 예경하고 공경하며 스님이나 법사들은 늘 신도님을 부처님 대하듯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 스님은 삼보의 하나로서 마땅히 예배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아상이 높아서 위 아래도 구분치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서로가 배려와 존경으로서 늘 아름다운 불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피로를 풀어주는 능인라벤더 향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15,000원 규격 : 약 14cm(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